

#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위해 인프라 중점 점검

이철우 지사, 점검회의 참석해 정상급 숙소 등 현황·보완 확인  
범정부 차원 지원협력체계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APEC 정상회의 관계자들이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와 경주시가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 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청취하고, 개최 도시 자치단체로서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 관련 협업 중인 주요 부처인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그간의 준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전 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미디어센터, 전시장, 기타 부대 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북 경주를 선정한 취지와 의미를 잘 살려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상급 숙소 확보, 회의 시설을 비롯한 시설 인프라 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 부문까지 모두 합심해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협력 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향후 범정부 차

원의 '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적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하면서도, 국격에 맞는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긴밀히 소통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문화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홍보할 중요한 기회이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준비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부족한 부분은 보완 개선하고, 관계 기관 모두 힘을 모아 국가 정상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해남군 '표 물개' 조오련 기념관 개관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를 기리는 조오련 기념관이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에 개관했다.

지난 30일 열린 개관식에는 박지원 국회의원과 명현관 해남군수, 이성욱 해남군의회의장과 군의원, 지역주민, 체육계 동료 및 후배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관에는 조오련 선수가 독도 횡단 후 입었던 한복, 트로피와 훈장, 어머니 손편지, 서재의 책들과 사용했던 책상, 수영 훈련 일지 등을 전시해 그의 일대기와 도전 정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기리는 장소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부산항만공사 엘살바도르 항만 역량강화 지원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29~30일 엘살바도르 정부의 항만 관계자 20여명이 부산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고 한국항만협회가 수행하는 엘살바도르 해양 항만관리 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엘살바도르 정부 관계자들은 29일 북항 재개발 홍보관을 방문해 재개발 사업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30일에는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신항의 건설 과정과 운영 현황, 미래 계획 등을 살펴 보고 선진화된 항만 운영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부산=이도식 기자

## 'K매운맛 영양고추' 행사 성료 30억 매출·10억 예약주문 성과

영양군, 서울광장서 3일간 개최  
15만여명 관람객·소비자 방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진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 사진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 행사가 'K매운맛 영양고추 맛보러 오이소'라는 주제로 8월 29일부터 3일간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광장에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기간 동안 15만여명의 관람객과 소비자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농·특산물 판매 30억여원의 매출과 10억여원의 예약주문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TV광고, 신문보도, 오프라인 프로모션 행사 등으로 300억 원 이상의 홍보 및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2007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고추라는 단일테마로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영양고추 H.O.T Festival」은 올해 16회로, '가장 작은 육지섬'에서 '대한민국 최대 중심도시'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행사이다. 올해도 영양고추의 K매운맛을 제대로 전하고 자알차고 내실 있는 짜임새로 도시민의 소비욕구를 충족시켰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나주 문화유산 야행"서 가을밤 즐겨요

이달 27일~29일 열려



전라도 천년 역사의 중심지 나주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밤거리 축제가 9월 열린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나주읍성 일원에서 '2024년 나주 문화유산 야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주 문화유산 야행(夜行)은 문화유산 가치 재조명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행사로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나주시가 주최하고 나주 문화유산 야행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축제 기간 작은 서울, 소경(小京)으로 불리었던 나주읍성 안 금성관, 나주향교, 나주목사내아 등 문화유산을 야간시간대 개방해 가을밤 고즈넉한

낭만을 선사한다. 올해는 '천년의 빛, 나주를 비추다'라는 주제로 '빛'을 테마로 한 8야(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야행 행사는 27일 오후 7시 나주 금성관에서 막을 올린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4대 항만공사, 항만운영 협력 강화 도모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4대 항만공사(PA)가 항만 운영 협력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울산, 부산, 인천, 여수광양 등 전국 4대 항만공사(UPA, BPA, IPA, YGPA)는 지난 30일 오전 울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항만 운영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항만 운영 현안을 공유해 상호 간 상생과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항만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항만 운영 관련 각종 현안 과제 협력 등이다.

제1회 4대 PA 항만 운영 협의체에서는 8개 정책 과제와 4개 현안 과제 등 총 12개 과제를 논의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장기계류선박 관리 방안, 사용자 이슈 협력, 항만시설 운영 체계 개선 등이다.

이번 협의체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의된 과제는 꾸준한 논의와 함께, 필요시 4대 PA 공동 연구 과제로 선정 후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북도, '전국기능경기대회' 5년 연속 우수

83명 입상... 전국서 가장 우수

경상북도가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49개 직종 150명의 선수가 참가해 83명이 입상하면서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경북도는 자동차페인팅 김민재(경북휴먼테크고), 공업전자기기이준희(금오공고), 농업기계정비 김진현(한국생명과학고), 판금철골구조물박성빈(신라공고), 주조 원영대(포항제철공고), 배관 김종석(신라공고), 사이버보안 류건모(경북소프트웨어고), 타일 김용경(경북직업훈련교도소), 목공 한성호(상주공고), 실내장식 서재덕(안동고도소), 그래픽디자인 김

도희(구미전자공고), 화훼장식 조준희(개인) 선수가 12개 금메달을 받았다. 기계설계/CAD 등 16개 직종에서 18명 선수가 은메달, 산업용 드론제어 등 15개 직종에서 15명의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했다.

특히, 자동차 페인팅 직종에서 금메달을 딴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김민재 선수는 대회 최상위(최고 득점)로 입상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아 경상북도 숙련 기술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금오공업고등학교(금메달 1, 은메달 4, 동메달 3)는 우수 선수 육성기관에 주어지는 단체표창인 동탑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경북=나영조 기자

### 경남도 건축공사 현장 감리 실태 점검

경남도는 도내 민간 건축공사 현장 1250곳에 대한 감리 실태를 9월4일부터 11월19일까지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일환으로 건축공사 현장에서 감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상은 도내 건축공사 현장 중 감리가 배치된 민간 공사 현장 1250곳으로, 상시 점검과 불시 점검을 병행해 감리자의 의식과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 울산시 해외사절단과 우즈베키스탄 방문

울산시는 해외사절단을 이끌고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해외 출장길에 오른 김두겸 시장이 첫 일정으로 30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먼저 이날 오전 8시 우즈베키스탄 빈근퇴치고용부를 방문해 무사예프 베흐조드 장관과 환담을 갖고 울산시와 우즈베키스탄 빈근퇴치고용부 간 우호 협력 발전과 상호 교류 증진, 인적 자원 개발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